

## 설익은 새 프로그램 그래도...압도적 1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20일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16 리듬체조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파견대표 선발전에서 리본 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연재 리우올림픽 리허설

###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 시니어 개인 1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손연재는 20일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필승주체육관에서 열린 2016 리듬체조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파견대표 선발전 시니어 개인 부문에서 후프(17.850점)-볼(17.750점)-근봉(18.000점)-리본(17.700점) 4종목 합계 71.300점을 획득했다.

손연재는 2위 천송이(59.800점·세종고)를 10점 차 이상으로 크게 따돌리고 1차 선발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국 리듬체조는 손연재가 지난해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1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쿼터 1장을 확보했다. 올림픽 진출권 15장 가운데 야나 쿠드랍체바와 마르가리타 마문이라는 ‘세계 투톱’을 보유한 러시아만 2장을 따냈을 뿐 한국을 포함해 나머지 국가들은 1장씩 가져갔다.

한국 리듬체조는 이번 1차 선발전(50%)과 오는 4월 열리는 2차 선발전(50%) 점수를 합산해 올림픽 출전자를 가린다. 손연재와 다른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워낙 뚜렷해 이번이 없는 한 손연재가 2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선발전은 결과보다는 손연재가

올림픽 시즌에 선보일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손연재는 공연한 대로 장기간 포에테 피봇을 4개 프로그램 모두에 최대한 가미했고, 댄싱 스텝도 많이 추가해 화려하고 다채로운 느낌을 선사했다.

손연재는 아직 프로그램이 몸에 덜 익었기 때문인지 첫 종목인 후프에서부터 실수가 나왔다. 후프에서 프로그램 중간에 수구를 손에서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며 18점대 획득에 실패한 손연재는 이어진 볼에서도 또다시 18점대를 넘지 못했다. 손연재는 근봉에서도 프로그램 초반에 수구를 떨어뜨리는 실수가 나왔지만 경쾌한 몸놀림과 현란한 수구 조작을 통해 처음으로 18점대를 찍었다.

마지막 종목은 손연재가 승부수를 던진 리본이었다. 손연재는 리본에서 공식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탱고 음악인 ‘리베르탱고(Libertango)’를 배경음악으로 선택했다. 탱고의 강렬한 리듬에 맞춰 뺨간 리본을 고른 손연재는 정적이었던 이미지를 벗고 탱고의 열정과 관능을 리본의 움직임 속에 담아냈으나 점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 신태용호 23명 전원 출전

### AFC U-23 챔피언십 C조 최종전 이라크와 비기며 조 1위

### 8강 이미 확정...휴식·점점 다양한 ‘팔색조 전술’ 실험도



한국이 이라크와 맞붙은 2016 아시아 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비겨 전승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조별리그 3경기를 거치며 ‘23명 전원 출전’과 ‘다양한 전술 실험’이라는 두 가지 열매를 수확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20일 카타르 도하의 알 아리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 최종전에서 전반 22분 김현(제주)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추가시간 압제드 후세인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1-1로 비겼다. 전승에는 실패했지만 한국은 C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한국과 이라크는 이미 1, 2차전에서 나란히 2연승을 거둬 8강을 확정짓는 터라 이날 두 팀 모두 ‘필승’보다는 ‘휴식과 점점’

을 앞세우면서 경기의 긴박감은 다소 떨어졌다.

신 감독은 앞서 1, 2차전에 나서지 못했던 좌우 풀백 구현준(부산)과 박동진(광주)을 선발로 내보냈고, 그동안 교체로 출전한 원톱 스트라이커 김현(제주)에게 선발 출전. 또 후반 30분에는 공격수 강창우(포항)를 교체로 투입하며 그라운드를 밟을 기회를 줬다. 이를 통해 신 감독은 이번 대회에 나선 23명의 태극전사가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전원 출전’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8강전부터는 지면 무조건 탈락하는 토너먼트인 만큼 모든 선수가 실전을 경험하면서 위급 상황에서 투입되어도 경기 감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신 감독의 복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불어 신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준비한 전술을 조별리그에서 모두 가동하는 성과도 거뒀다.

우즈베키스탄과 1차전(2-1승)에서는 4-4-2 전술을 선택한 신 감독은 예멘과 2차

전(5-0승)에서는 4-1-4-1 전술을 가동했다. 신 감독은 8강 진출을 확정하고 나선 치른 이라크와 3차전에서는 4-2-3-1 전술로 나섰다. 사실상 신태용호의 ‘필승전술’은 4-4-2 전술이지만 상대와 상황에 따라 나머지 2가지 전술을 모두 쓰면서 선수들이 3가지 전술에 더 익숙해지도록 전술 실험을 펼쳤다. 신 감독이 이처럼 ‘팔색조 전술’을 가동한 이유는 8강 이후 상대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포석도 있다.

신 감독은 “다른 팀들이 우리 전술을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술을 바꾸면 헷갈릴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전술을 꺼내 들면 우리 조직력도 좋아진다. 이러한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수들도 4-2-3-1 전술에 최적화된 선수가 있고 또 4-4-2 전술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다”며 “한 가지 포메이션만 고집하면 이런 장점들을 고집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감독은 조별리그 3경기를 통해 다양한 선수 기용과 전술을 시험 가동, 궁극의 목표인 올림픽 티켓 확보를 위한 3위 이내 달성의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연합뉴스

## 이라크전 관전 슈틸리케 “좋은 선수 찾고 있다”

우리 슈틸리케 감독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 참가한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이라크의 조별예선 3차전을 관전하기 위해 알 아리비 스타디움을 방문한 슈틸리케 감독은 기자들과 만나 “좋은 선수를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금 올림픽 대표팀인

23세 이하 선수들은 2018년 월드컵이 되면 축구선수로서 가장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이 1-0으로 리드를 잡은 전반전에 대해 “아주 인상깊었다”고 평가했다.

대표팀 숙소인 도하의 레디슨 블루 호텔에 여장을 풀 슈틸리케 감독은 아직 선수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만



간 선수들을 만나 “한국에 올림픽은 중요한 대회이니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슈틸리케 감독은 오는 3월에 치러질 2018 월드컵 2차 예선 남의 경기에 대해선 “레바논과 쿠웨이트를 꼭 이겨 무패를 기록하겠다. 지난해 보였던 좋은 기록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1년 7억

### K리그 수익 ‘반토막’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의 수익 규모가 전년 대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경영공시에 따르면 2015년 K리그 수익은 7억 2200만원으로 2014년의 16억 7300만원의

43% 수준에 불과했다. 연맹이 처음 경영공시를 했던 2012년 5억 4000만원의 수익을 낸 이후 2013년 9억 5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계속 늘어왔던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2015년 수입은 243억 9600만원으로 2014년 수입 242억 3600만원보다 0.6% 늘고 있었다.

중계권 수입이 68억 5300만원에서 65억 원으로 줄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식 후원금이 32억 6600만원에서 27억 3100만

원으로 감소한 탓이 컸다.

2015년 지출은 236억 7400만원을 기록, 2014년 225억 6300만원보다 4.9% 늘었다. 광고마케팅 지출은 101억 8900만원에서 119억 6700만원으로 늘었다.

연맹측은 “2014년에는 올스타전이 흥행에 성공하는 등 수익이 많았다”면서 “지난해에는 수익이 감소한 만큼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1년의 기다림...호랑이 독해졌다

### 무언의 메시지·애정어린 관심에 선수들 변화

### 나지완 몸무게 줄이고 한승혁 몸집 키우고

### 애리조나 캠프 합류 브렛 필, 한글로 인사



김기태호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알아서 잘하는 선수 만들기’를 위한 초석 다지기’로 표현할 수 있다.

‘창의력’을 강조한 KIA 김기태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독특한 훈련을 적용하면서 선수들이 프로답게 알아서 움직이고, 스스로 고민 하면서 플레이를 풀어나가기를 바랐다. 이렇다 저래라 하는 잔소리 대신 무언의 메시지와 애정어린 관심으로 선수들의 변화를 기다렸던 1년. 벤치의 바람대로 선수들이 자가발전하고 있다.

캠프 출발 전까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선수들은 공식 일정도 잔소리로 없었지만 알아서 체력테스트에 대비하고 캠프 준비를 완료했다. 부담스러웠던 체력테스트가 끝나고, 캠프 명단이 발표됐던 다음날에도 결과가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이들로 챔피언스 필드는 북적거렸다.

몸집을 줄이고 늘린 선수들의 상반된 모습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나지완은 캠프에 앞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이다.

묵묵히 개인 운동을 해왔던 외야수 나지완은 몰라보게 날렵한 몸으로 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한 해의 실패를 돌아보고 절치부심 이를 악물고 나지완은 “돼지”가 아니라 수비도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많이 믿어주시는 감독님께 죄송하다. 올해는 웃음을 드리고 싶다”며 올 시즌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식단까지 조절하면서 늘어난 변화를 보여준 나지완. 자율과 책임 속에서 나지완이 예전의 몸매를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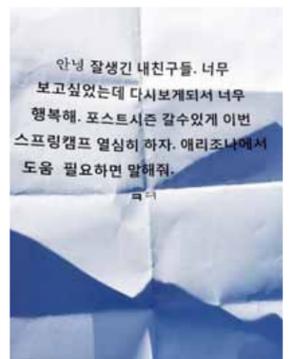
나지완에 가려졌지만 포수 이흥구도 달라진 턱 선으로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느냐”는 소리를 들은 인물이다. 휴식기 동안 부지런히 챔피언스 필드에 출근 도장을 찍었던 이흥구는 먹을 것도 잠아가면서 98kg까지 몸무게를 낮췄다. 체지방률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나카무라 배터리 코치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다.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기도 했다”

고 웃은 이흥구는 “코치님과 100kg까지 몸무게를 줄이기로 약속했다. 살을 빼면서도 웨이트를 열심히 했다. 근육은 안 빠진 것 같다”고 뿌듯해 했다.

캠프와 2016시즌 준비로 몸집이 준 선수가 있지만 반대로 몸집이 불어난 선수도 있다. 투수 한승혁은 이번 캠프를 앞두고 새로 정장을 맞췄다. 캠프 입·출국을 할 때나 챙겨입는 정장을 새로 장만한 이유는 ‘몸이 커져서’이다. 훌쩍했던 루키 시절에 비하면 몸무게는 5~6kg 정도 밖에 늘지 않았지만 꾸준한 웨이트와 강훈련 속에 몸집이 부쩍 커진 것이다.

한승혁은 “웃이 작아졌다. 미국은 이동시간이 길기도 하고 웃이 불편하면 날 될 것 같아서 새로 정장을 장만했다. 운동도 많이 하고 몸이 좋아졌다”고 언급했다.



한승혁뿐만 아니라 홍건희, 박준표 등 92동기들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함께 운동을 하고 맘을 흘리면서 1년 새 몸이 더욱 탄탄해졌다. 알아서 진화하고 있는 ‘호랑이 군단’.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등장한 인물도 있다.

20일 캠프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 브렛 필은 오랜만에 본 동료를 위해 편지<사진>를 써왔다. 웬만한 한글을 읽는 필은 자신의 도움을 받아 1주일의 시간을 들여 한국어 편지를 썼다. 그리고 선수단 앞에서 “안녕 잘생긴 내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다시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해. 포스트 시즌 같 수 있게 이번 스프링 캠프 열심히 하자. 애리조나에서 도움 필요하면 말해줘. 쿨”이라고 쓴 편지를 읽으면서 큰 박수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